거듭남의 반대, 덧대기

(요3:1-5)

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거듭남의 반대, 덧대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거듭남의 반대, 덧대기'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이 신앙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실효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어떠한 교리와 신앙적 지식을 외우고 알고 있더라도, 거듭남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아예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니고데모한테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타당하지요, 내용을 모르면.

그럼 우리는 압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도 몰라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쓸데없는 교리적인 논쟁에만 휘말려 있는 겁니다.

중생, 거듭남, 위로부터 남,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쓰이는데.
중생은 단번에,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중생의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것이다.
중생은 일회적이냐? 반복되는 것이냐?
중생을 하고 그 다음에 성화되는 것이다, 아니다 중생적 역사가 반복되어야 된다.
중생은 오랜 기간 동안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황망하고 허망한 논쟁들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듭남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실제 거듭남이 뭐냐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말이 많은 겁니다.

거듭남의 반대말을 알면, 우리가 거듭남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반대말이 바로 덧대기라는 얘기입니다, 덧대기.
덧대기가 뭔지 아시죠?
태풍이 강하게 불 때에, 창문이 깨질까봐 창문에다가 판자를 덧대서 망치질을 합니다.
이게 덧대는 거예요, 기존의 창문을 놔두고 위에다 덧대는 거지요?
그리고 자켓의 팔꿈치 같은 데가 잘 해지니까, 아예 그 위에다가 가죽을 덧댑니다.
그것이 또 멋스러움을 자아내기도 하지요? 이게 덧대는 거지요.
거듭남의 반대가 바로 이 덧대는 거라는 겁니다.
창문에 있어서 거듭남이라는 건 뭐겠어요?
기존의 창문자체를 떼어내고, 새로운 어떤 바람이 불어도 깨지지 않는, 그런 새 창문을 다는 것이 거듭남이라 그러면, 덧대는 것은 기존의 창문을 놔두고 그 위에 판자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이처럼 덧대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덧대기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덧대기 신앙을 갖고 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반대가 덧대기라고 하는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중생과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이지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에 보면 하는 말이, 정말 완전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만나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나름대로 니고데모가 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신 의도와도 부합하는 고백이고 리액션입니다.
왜 표적을 베푸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표적을 행하셨고,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님께서 너무 냉혹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욕을 하신 바리새인의 그룹 중에서 밤에 찾아와 이정도의 고백을 하면, 사실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다음 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아예 들어가지를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바리새인 니고데모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주님의 반응입니다.
참 성격이 어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발로 박차고 문을 열고 나왔을 텐데,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거를 보면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이 2장에서부터 연속되는 겁니다.
사도요한이 이 글을 쓸 때, 2장에서부터 연속되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장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하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리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관계를 트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신뢰를 주지를 않으셨다는 얘기에요.
믿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와서,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2장에서의 예가 니고데모로 나타나고 있는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중생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니고데모 속에 무엇이 있기에 그것을 보시고 중생하라, 거듭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나는 누구인데 거듭나야 됩니까?
내가 태어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루어진 것은 관계의 확장입니다.
맨 처음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나의 내용이 채워집니다, 누구의 아들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의 동생이고, 누가 내 누나이고 누가 내 형이고, 이 관계가.
그 다음에 확장되어 갑니다, 점점 사회적으로.
태어나면서 한 것이 관계의 확장이고, 그 관계마다 나에게 '나'라는 의식의 내용을 채워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의 동생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의 친구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의 선생이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누구의 아내다.
관계를 가질 때마다 나의 내용을 채워줍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나'라고 하는 의식의 내용들을 다 거둬내라는 얘기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나'라는 의식의 주머니 안에 채워진 모든 내용들을 싹 다~ 거둬내고,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덧대기란 무엇입니까?
기존의 관계를 다 그대로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기에 덧붙이는 겁니다.
누구의 아내로서, 누구의 남편으로서, 누구의 아들로서, 누구의 딸로서, 누구의 아빠로서, 누구의 엄마로서, 누구의 선생님으로서, 어느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모~든 관계를 다~ 내 마음에 '나'라는 의식의 주머니 안에 둔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덧붙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반대의 덧대기 믿음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얘기에요.
자기의 기존의 모든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탐색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 온 겁니다, 남의 이목을 피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탐색한 뒤에, 예수님과 대화가 잘 맞고, 소위 말해서 feel이 꽂히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기의 기존의 모든 관계에 덧붙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가 성경에 없을까요? 거듭남의 예가?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텐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이 예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욥의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바로 욥이 거듭남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열 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일시에.
그러니까 욥의 '나'라는 의식 속에는, 열 명의 자녀들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그 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생긴, 아버지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열 명의 자식이 다 죽고 나니까, '나'라는 의식의 주머니 안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내용

이 빠져나갑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많던 재산과 기업이 다 일시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나'라는 의식 속에는 기업가라는 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 부자라는 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 다 없어지고 기업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나'라는 의식의 주머니 안에 부자라는 생각, 사업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나'라는 내용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나'라는 내용의 의식의 주머니 안에서 그 내용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겁니다.

아내가 자기를 떠나버립니다.
남편이라는 내용이 '나'라는 의식의 주머니 안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친구들이 모두가 다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욥의 입장에 되어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의 친구라고 하는 내용이 마음에서 다 빠져 나가버립니다.
몸에 악창이 생깁니다.
몸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떳떳한 존재감을 느끼는 '나'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사회의 명망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사회적으로 VIP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동방에 이런 의인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사회적인 VIP라고 하는, 대사회적인 관계에서 갖고 있었던 자아의식이, 이 '나'라는 의식의 주머니 안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몸도 다 곪아 터져가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내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회적인 명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시면서 욥과 관계를 처음으로 맺게 됩니다.

마음의 내용에, '나'라고 하는 그 의식의 주머니 안에, 아~무 내용도 없는 깜깜한 빈 공간 안에, '나'라는 의식의 주머니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욥이 한 말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욥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다가, 이제 하나님을 뵙니다’

왜 하나님을 보는 겁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기존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 되었던 ‘나’라는 내용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누구의 친구도 아니고, 사회적인 무슨 명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게 부여 되었던 모든 ‘나’라는 의식이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라는 그 내용이 처음으로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마음의 내용이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니고데모로 돌아가 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 때문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렸듯이 타인의 이목을 의식해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었고, 아직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무슨 학파를 결성할 수 있는 랍비 수준의 등극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부를 만큼 세리들이 그를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추종하는 듯 하는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는 겁니까?

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아니면 하버드대나 예일대나 아이비리그를 나와서 한국에 온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탁월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유대인의 지도자는 밑에 그 각주를 보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 그래요.

산헤드린 공회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도 되고 또 대법원도 됩니다.

대법원 판사이자 국회의 국회위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게 하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을 백 근을 기부를 합니다.
대단한 부자입니다.

이러한 '나'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냐? 바리새인 엘리트다, 나는 누구냐? 국회의원이고 법관이다, 나는 누구냐? 사업가요 부자다, 나는 누구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다.
이런 '나'라는 내용들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와 관계를 맺었다가는, 이 기존의 관계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찾아 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 온 것만 보고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걸 보면, 왜 밤에 찾아왔는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탐색을 하고, 괜찮으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덧입히려고, 덧대기를 하려고 찾아 왔는데 바로 주님이 그걸 꼬집으시고, '나와의 관계 나를 통해 갖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가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부자로서, 그리고 누구의 아버지일 것이고, 누구의 남편일 것이고, 누구의 아들일 것이고, 누구의 친척일 것인데, 그런 모~든 기존의 이 땅 위에서 받게 되는 모든 관계를, '나'라는 의식의 내용들을 다~ 유지하면서, 나와의 관계를 그 위에 덧대려고 하느냐?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거듭남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남편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빠요 누구의 엄마입니까?, 어느 회사의 직원입니까?,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십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
이런 이 땅에서의 기존의 모든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위에 덧대려고 하십니까?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 땅 위에서 '나'라는 의식의 주머니에 내용을 채우고 있는 관계들에 대해, 다 죽는 겁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들이 죽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내용이 사라져 버리고, 아내가 떠나서 남편이라는 내용이 사라져 버리고, 재산이 없어지면서 기업가요 사업가요 부자라는 '나'라는 의식이 사라져 버리고, 친구가 등을 돌리면서 친구라는 의식이 사라져 버리고…
모~든 의식이, '나'라는 의식의 내용들이 다 ~ 사라져 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처음 만나지는 사람이 되어야, 바로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에 의해서 '나'라는 의식의 내용이 처음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관계를 맺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는,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게 뭐라고요?
내게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행동을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주님만이 나와 관계를 맺고, 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누구냐 하면 주님에 의해서 구원 받은,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는 의식으로 하늘에서 완결된 채로, 이 땅에 내려 와서는 관계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지, 그들이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이 내게 행동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덧대기 신앙을 가지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것은 믿음으로서 성립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덧대기를 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덧대기를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다~ 긁어내고 마치 오리백숙 집에 가보면 오리 내장을 싹 긁어내고, 그 안에 쌀이다 뭐 밤이다 대추다 집어넣는 것처럼, 완전히 내 마음 안에 '나'라는 의식의 주머니 안에 있는 기존의 모든 관계를 싹 긁어내고,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로만 채워서 밀봉을 시켜버리는 것, 이게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덧대기를 해 놓고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거듭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제 덧대기의 믿음을 끝내고, 진정한 의미에서 욥에게 일어났던 일이 내게도 일어나므로, 나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나라를 볼 수 있는, 중생한 자의 믿음이 오늘 하루 내내 나를 지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